

학교준비도 잠재계층에 따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학교적응 및 심리적 특성 차이 검증: 부모, 교사의 중다 평정 자료 활용을 중심으로

연은모¹, 최효식^{2*}

¹영남대학교 교양학부, ²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Identifying Latent Classes in School Readiness and Testing its Relationship to School Adap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Eun Mo Yeon¹, Hyo-Sik Choi^{2*}

¹College of Basic Studies, Yeungnam University

²Department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중다 평정 결과에 기초한 최적의 잠재계층을 탐색하고, 탐색된 잠재계층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3학년 시기의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 문제행동, 자아존중감, 행복감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2014년)~10차년도(2017년) 자료의 1,154명을 분석 대상으로 했으며, 잠재프로파일분석, 다변량분산분석, 일원분산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중다 평정 결과에 기초했을 때, 잠재계층은 '일치된 하 집단', '부모가 교사보다 더 높게 지각한 집단', '교사가 부모보다 더 높게 지각한 집단', '일치된 상 집단'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초등학교 1~3학년 시기의 학교적응 차이 검증 결과, '일치된 상 집단'과 '교사가 부모보다 더 높게 지각한 집단'이 '일치된 하 집단'보다 대체로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 모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셋째, 초등학교 1~3학년 시기의 학업수행능력, 문제행동,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일치된 상 집단'이 '일치된 하 집단'보다 대체로 학업수행능력, 자아존중감, 행복감 수준은 높지만, 문제행동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취학 전 유아 시기의 부모와 교사의 중다 평정 결과를 활용하여 학교준비도 수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기초한 적절한 교육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학교생활적응 및 심리적 안녕감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latent classes in school readiness which were measured by both parents and teachers, and to test the relationship with school adaption, academic abilities, problematic behaviors, self-esteem, and happiness. Latent Profile Analysis (LPA), MANOVA, and one-way ANOVA were conducted using the data of 1,154 1st to 3rd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data was collected between the 7th year (2014) to the 10th year (2017)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The results of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our school readiness groups were identified: the consistent low group, parent perceived high group, the teacher perceived high group, the consistent high group. Second, the consistent high group and the teacher perceived high group showed relatively better academic abilities and school adaption than the consistent low group. Furthermore, the consistent high group showed higher academic abilities, self-esteem, and happiness, but lower problematic behaviors than the consistent low group.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utilized as preliminary data for understanding school readiness to promote successful school adap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ldren.

Keywords : School Readiness, School Adaption, Academic Abilities, Problematic Behavior, Self-Esteem, Happiness

*Corresponding Author : Hyo-Sik Choi(Chuncheon National Univ. of Education)

email: s970218@cnu.ac.kr

Received December 31, 2019

Accepted June 5, 2020

Revised January 23, 2020

Published June 30,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school readiness)는 초등학교 시기의 학습 및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1-2].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 수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자녀의 적응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동안의 대다수 선행연구는 교사 또는 부모 중 하나의 평정 자료를 이용하여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확인하고, 관련 변인과의 관계 탐색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진단결정은 중다 정보원에 기초하는 것이 더 타당하며[3], 교사와 부모가 자녀를 관찰할 수 있는 측면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와 교사가 평정한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함께 고려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중다 평정 결과에 기초했을 때 어떤 유형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유형에 따라 초등학교 시기에 중요한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 문제행동,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준비도는 아동이 학교생활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배우는 데 필요한 다양한 행동과 기술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를 의미하며[1], 학습과 발달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총체적 개념이다[4]. 취학 전 유아기의 학교준비도는 초등학교 시기의 학업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학교준비도의 하위 요인에 포함된 기술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복잡한 인지 능력 발달, 긍정적 학교 적응에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5 재인용].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는 학업성취 및 학교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은 아동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특성 중 하나이다. 교사 단일 평정 결과에 기초한 학교준비도의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한 한 연구에 따르면,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의 학교적응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 그리고 아동의 문제행동, 자아존중감, 행복감의 개인특성은 초등학교 적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7-9].

부모와 교사 등의 중다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해석하는 것은 자녀의 발달을 이해하고,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0]. 중다 정보원의 사용은 중다 정보원을 사용할 때 단일 정보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11].

자녀의 특성에 대한 부모와 교사 간 평정 일치도는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이는 아동의 행동이 상황의존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학교와 가정에서 자녀가 보이는 행동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는 주로 학교에서 다른 아동을 포함하여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반면, 부모는 주로 가정에서 자녀하고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획득할 수 있는 정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자녀에 대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3, 13-14].

본 연구와 선행연구 간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와 관련된 대다수 선행연구가 부모 또는 교사의 단일 평정 자료에 기초하여 연구를 수행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중다 평정 결과 자료에 기초했을 때 어떤 유형이 존재하는지 확인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둘째,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와 초등학교 시기 자녀의 특성 간의 관계를 확인한 많은 연구가 학교적응과의 관계 확인에 집중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학업수행능력, 문제행동, 자아존중감, 행복감과의 관계로 확장하여 관련성을 살펴본다는 차이점이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중다 평정 결과에 기초한 최적의 잠재계층을 탐색하고, 탐색된 잠재계층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3학년 시기의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 문제행동, 자아존중감, 행복감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 1)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중다 평정 결과에 기초한 잠재계층은 몇 개로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2) 잠재계층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3학년 시기의 학교적응 차이를 확인한다.
- 3) 잠재계층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3학년 시기의 학업수행능력, 문제행동, 자아존중감, 행복감 차이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2014년)~10차년도(2017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단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15]. 본 연구에서는 학교준비도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중다 평정 자료가 있는 1,154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2 연구 도구

2.2.1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2014년)의 보호자와 부모 응답 자료를 사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보호자 중 부모의 응답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학교준비도는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5문항), 사회 정서 발달(6문항), 의사소통(3문항), 학습에 대한 태도(8문항)의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자와 교사가 각각 4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였다. 문항은 사회 정서 발달 '양육자와 쉽게 떨어진다.', 학습에 대한 태도 '교사가 주도하는 집단 활동에 집중한다.', 의사소통 '간단한 지시, 요청, 정보를 이해한다.',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 '상상놀이를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5].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사회 정서 발달 부모 $\alpha=.74$, 교사 $\alpha=.77$, 학습에 대한 태도 부모 $\alpha=.86$, 교사 $\alpha=.88$, 의사소통 부모 $\alpha=.85$, 교사 $\alpha=.81$, 인지 발달 및 일반적 지식 부모 $\alpha=.81$, 교사 $\alpha=.78$ 로 확인되었다.

2.2.2 학교적응

초등학교 1학년~3학년 시기의 학교적응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2015년)~10차년도(2017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학교적응은 교사적응(5문항), 학교생활적응(11문항), 또래적응(8문항), 학업수행적응(11문항)의 4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속 학급 담임교사가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였다. 문항은 교사적응 '선생님께 인사를 잘한다.', 학교생활적응 '실외활동시간에 질서를 잘 지킨다.', 또래적응 '친구들과 친하게 지낸다.', 학업수행적응 '과제를 잘해오며 준비물을 잘 챙겨온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5].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교사적응 8차 $\alpha=.84$ 9차 $\alpha=.81$ 10차 $\alpha=.83$, 학교생활적응 8차 $\alpha=.96$ 9차 $\alpha=.96$ 10차 $\alpha=.95$, 또래적응 8차 $\alpha=.94$ 9차 $\alpha=.93$ 10차 $\alpha=.94$, 학업수행적응 8차 $\alpha=.94$ 9차 $\alpha=.94$ 10차 $\alpha=.94$ 로 확인되었다.

2.2.3 학업수행능력

초등학교 1학년~3학년 시기의 학업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2015년)~10차년도(2017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8차년도는 국어(4문항), 수학(5문항), 전반(1문항), 9차년도는 국어(4문항) 수학(3문항), 예체능(3문항), 전반(1문항), 10차년도는 국어(3문항), 수학(4문항), 과학(1문항), 사회(1문항), 예체능(3문항), 전반(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속 학급 담임교사가 5점 Likert 척도('하위 20% 이내(1점)'~'상위 20% 이내(5점))로 응답하였다[15].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8차 $\alpha=.98$, 9차 $\alpha=.96$, 10차 $\alpha=.97$ 로 확인되었다.

2.2.4 문제행동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시기의 문제행동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2015년)와 10차년도(2017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측정 점수는 한국아동패널에서 제공하는 원점수를 활용하였다. 원점수는 보호자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런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 중 하나에 응답한 결과이다[15].

2.2.5 자아존중감

초등학교 1학년~3학년 시기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2015년)~10차년도(2017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이 4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로 응답하였다. 문항은 '○○(이)는 좋은 면이 많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5].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8차 $\alpha=.77$, 9차 $\alpha=.75$, 10차 $\alpha=.74$ 로 확인되었다.

2.2.6 행복감

초등학교 1학년~3학년 시기의 행복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2015년)~10차년도(2017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행복감은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이 4점 Likert 척도('전혀 행복하지 않아요(1점)'~'매우 행복해요(4점))로 응답하였다. 문항은 '○○(이)는 하루하루를 생각하면 어떠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5].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8차 $\alpha=.68$, 9차 $\alpha=.71$, 10차 $\alpha=.73$ 로 확인되었다.

2.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분석을 위해 한국아동패널(<http://panel.kicce.re.kr>)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제공 받았으며, SPSS 18.0과 Mplus 7.4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중다 평정 결과에 기초했을 때 어떤 유형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3학년 시기의 학교적응 수준 차이 검증을 위해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활용하였다. 셋째,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3학년 시기의 학업수행능력, 문제행동, 자아존중감, 행복감 수준 차이 검증을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아동, 부모, 교사의 특징을 7차년도(2014년) 자료를 토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 593명(51.4%), 여아 561명(48.6%), 월령은 72개월 25명(2.2%), 73개월 136명(11.8%), 74개월 238명(20.6%), 75개월 327명(28.3%), 76개월 245명(21.2%), 77개월 109명(9.4%), 78개월 60명(5.2%), 79개월 14명(1.2%)이다. 어머니의 연령은 20대 16명(1.4%), 30대 878명(76.1%), 40대 253명(21.9%), 50대 5명(.4%), 무응답 2명(.2%), 아버지의 연령은 20대 3명(.3%), 30대 608명(52.7%), 40대 514명(44.5%), 50대 16명(1.4%), 무응답 13명(1.1%)이다. 교사의 연령은 20대 561명(48.6%), 30대 371명(32.1%), 40대 182명(15.8%), 50대 40명(3.5%)이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Category	N	%
Child's gender	Male	593	51.4
	Female	561	48.6
Child's age (months)	72	25	2.2
	73	136	11.8
	74	238	20.6
	75	327	28.3
	76	245	21.2
	77	109	9.4
	78	60	5.2
Mothers' age (yr)	79	14	1.2
	20-29	16	1.4
	30-39	878	76.1
	40-49	253	21.9
	50-59	5	.4
Fathers' age (yr)	no response	2	.2
	20-29	3	.3
	30-39	608	52.7
	40-49	514	44.5
	50-59	16	1.4
Teachers' age (yr)	no response	13	1.1
	20-29	561	48.6
	30-39	371	32.1
	40-49	182	15.8
	50-59	40	3.5

3.2 학교준비도 잠재계층 수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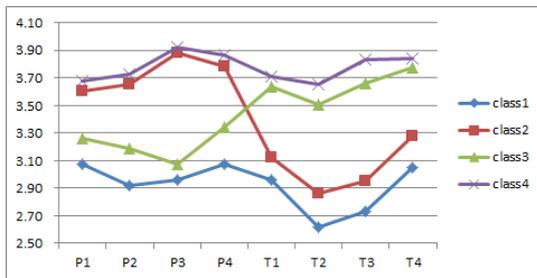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중다 평정 결과에 기초했을 때 어떤 유형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모형 적합도, 집단별 사례수의 비율, 해석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16], 네 개의 잠재계층 모형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된 네 개의 잠재계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잠재계층은 부모와 교사 모두 자녀의 학교준비도를 가장 낮게 평정한 것으로 나타나 '일치된 하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분석 대상의 104명(9.0%)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잠재계층은 부모가 교사보다 취학 전 유아의

Table 2. Model summaries for latent profile models considered for selection

Model	AIC	BIC	SABIC	Entropy	LMR(p)	BLRT(p)	Class proportions					
							1	2	3	4	5	
1	11067.338	11148.153	11097.332	N/A	N/A	N/A	100					
2	8685.255	8811.529	8732.121	.922	.0090	.0000	33.6	66.4				
3	7735.909	7907.642	7799.647	.886	.0482	.0000	22.5	54.8	22.7			
4	6679.466	6896.659	6760.077	.914	.0316	.0000	25.7	19.2	9.0	46.1		
5	6262.330	6524.981	6359.813	.926	.1568	.0000	23.4	18.9	.3	11.0	46.5	

학교준비도를 더 높게 평정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가 교사보다 더 높게 지각한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분석 대상의 222명(19.2%)이 포함되었다. 세 번째 잠재계층은 교사가 부모보다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더 높게 평정한 것으로 나타나 '교사가 부모보다 더 높게 지각한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분석 대상의 296명(25.7%)이 포함되었다. 네 번째 잠재계층은 부모와 교사 모두 자녀의 학교준비도를 가장 높게 평정한 것으로 나타나 '일치된 상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분석 대상의 532명(46.1%)이 포함되었다.



※ Class 1: consistent low group, Class 2: parent perceived high group, Class 3: teacher perceived high group, Class 4: consistent high group

Fig. 1. Profile plot of latent classes

3.3 잠재계층에 따른 학교적응 차이

잠재계층에 따른 학교적응의 4개 하위요인 차이 검증을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시기(2015년)에 학교적응 수준의 차이가 확인되었다(Wilks's $\Lambda=0.915$, $p<.001$). 구체적으로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에서 잠재계층 간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대체로 '일치된 상 집단'과 '교사가 부모보다 더 높게 지각한 집단'이 '일치된 하 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초등학교 2학년 시기(2016년)에서도 잠재계층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Pillai's Trace=.105, $p<.01$). 구체적으로 네 개 하위 요인 모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적으로 '일치된 상 집단'과 '교사가 부모보다 더 높게 지각한 집단'이 '일치된 하 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초등학교 3학년 시기(2016년)에서도 학교적응 수준의 차이가 확인되었다(Wilks's $\Lambda=0.865$, $p<.001$). 구체적으로 네 개 하위 요인 모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일치된 상 집단'과 '교사가 부모보다 더 높게 지각한 집단'이 '일치된 하 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3.4 잠재계층에 따른 학업수행능력, 문제행동, 자아존중감, 행복감 차이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잠재계층에 따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학업수행능력, 문제행동, 자아존중감, 행복감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먼저,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1~3학년 시기(2015년~2017년)의 학업수행능력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대체로 '일치된 상 집단', '교사가 부모보다 더 높게 지각한 집단', '부모가 교사보다 더 높게 지각한 집단'이 '일치된 하 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둘째,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1~3학년 시기(2015년~2017년)의 문제행동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대체로 '일치된 하 집단'이 '일치된 상 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셋째,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1~3학년 시기(2015년~2017년)의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대체로 '일치된 상 집단'이 '교사가 부모보다 더 높게 지각한 집단', '부모가 교사보다 더 높게 지각한 집단', '일치된 하 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넷째,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1~3학년 시기(2015년~2017년)의 행복감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대체로 '일치된 상 집단'이 '교사가 부모보다 더 높게 지각한 집단', '부모가 교사보다 더 높게 지각한 집단', '일치된 하 집단'보다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와 교사가 평정한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 평정 결과에 기초한 잠재계층을 탐색하고,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3학년 시기의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 문제행동,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차별적인 특징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문제별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중다 평정 결과에 기초한 잠재계층은 몇 개로 존재하는지 확인한 결과, 잠재계층은 '일치된 하 집단', '부모가 교사보다 더 높게 지각한 집단', '교사가 부모보다 더 높게 지각한 집단', '일치된 상 집단'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치된 하 집단'은 부모와 교사가 모두 자녀의 학교준비도를 가장 낮게 평정한 특징이 있으며, 분석 대상의 104명(9.0%)이 포함되었다. '부모가 교사보다 더

Table 3. Multiple comparisons of the four latent profiles representing school adaption

Variables	Latent Classes	N	M	SD	Multivariate	F	df	Tukey HSD	
School adaption 2015	School life 2015	Class 1	68	3.59	.94	Wilks's $\Lambda = .915^{***}$	13.52***	3	1,2<3,4
		Class 2	157	3.86	1.02				
		Class 3	228	4.17	.91				
		Class 4	379	4.23	.87				
	Classroom activity 2015	Class 1	68	3.26	.82		20.00***	3	1<2,3<4
		Class 2	157	3.68	.85				
		Class 3	228	3.83	.83				
		Class 4	379	4.03	.80				
	Relationship with friends 2015	Class 1	68	3.45	.84		15.32***	3	1<2<4 1<3
		Class 2	157	3.81	.83				
		Class 3	228	3.95	.77				
		Class 4	379	4.10	.76				
	Relationship with teacher 2015	Class 1	68	3.83	.74		1.65	3	
		Class 2	157	3.99	.74				
		Class 3	228	4.01	.78				
		Class 4	379	4.05	.76				
School adaption 2016	School life 2016	Class 1	68	3.67	1.01	Pillai's Trace=.105**	12.06***	3	1,2<4 1<3
		Class 2	144	3.90	.86				
		Class 3	203	4.09	.93				
		Class 4	342	4.26	.79				
	Classroom activity 2016	Class 1	68	3.39	.85		22.84***	3	1<2,3<4
		Class 2	144	3.75	.79				
		Class 3	203	3.78	.79				
		Class 4	342	4.13	.75				
	Relationship with friends 2016	Class 1	68	3.60	.79		11.84***	3	1,2,3<4 1<3
		Class 2	144	3.75	.81				
		Class 3	203	3.91	.75				
		Class 4	342	4.09	.74				
	Relationship with teacher 2016	Class 1	68	3.64	.67		14.61***	3	1<2,3<4
		Class 2	144	3.95	.64				
		Class 3	203	3.89	.70				
		Class 4	342	4.16	.68				
School adaption 2017	School life 2017	Class 1	48	3.82	.94	Wilks's $\Lambda = .865^{***}$	8.03***	3	1<4 1,2<3
		Class 2	85	4.14	.80				
		Class 3	136	4.44	.71				
		Class 4	241	4.29	.80				
	Classroom activity 2017	Class 1	48	3.30	.88		18.92***	3	1,2<4 1<2,3
		Class 2	85	3.92	.66				
		Class 3	136	4.05	.80				
		Class 4	241	4.18	.73				
	Relationship with friends 2017	Class 1	48	3.62	.82		8.90***	3	1<3,4
		Class 2	85	3.95	.76				
		Class 3	136	4.16	.76				
		Class 4	241	4.20	.78				
	Relationship with teacher 2017	Class 1	48	3.59	.92		8.78***	3	1<3,4
		Class 2	85	4.05	.64				
		Class 3	136	4.01	.76				
		Class 4	241	4.18	.72				

※ Class 1: consistent low group, Class 2: parent perceived high group, Class 3: teacher perceived high group, Class 4: consistent high group

* p<.05, ** p<.01, *** p<.001

Table 4. One-way ANOVA comparison of academic abilities, problematic behavior, self-esteem, happiness

Variables		Latent Classes	<i>N</i>	<i>M</i>	<i>SD</i>	<i>F</i>	Tukey HSD
Academic abilities	Academic abilities 2015	Class 1	68	3.56	1.03	28.81***	1<2,3<4
		Class 2	157	4.02	1.01		
		Class 3	228	4.24	.87		
		Class 4	379	4.49	.72		
	Academic abilities 2016	Class 1	68	3.57	1.00	20.24***	1<2,3<4
		Class 2	144	3.98	.84		
		Class 3	203	4.09	.83		
		Class 4	342	4.34	.73		
	Academic abilities 2017	Class 1	48	3.88	.88	6.44***	1<2,3,4
		Class 2	85	4.26	.76		
		Class 3	136	4.45	.72		
		Class 4	241	4.37	.84		
Problematic behavior	Internalizing problems 2015	Class 1	99	5.23	5.17	9.72***	2,4<1<3
		Class 2	213	3.52	4.06		
		Class 3	287	4.27	4.13		
		Class 4	513	3.20	3.58		
	Externalizing problems 2016	Class 1	99	6.28	5.01	13.38***	2,3,4<1<3
		Class 2	213	4.18	4.27		
		Class 3	287	4.70	4.66		
		Class 4	513	3.54	3.81		
	Internalizing problems 2017	Class 1	88	4.94	6.36	5.62***	4<1
		Class 2	193	3.51	5.21		
		Class 3	264	3.75	4.03		
		Class 4	483	2.99	3.68		
Externalizing problems 2017	Class 1	88	5.53	6.50	8.45***	2,3,4<1	
	Class 2	193	3.67	6.26			
	Class 3	264	3.75	3.82			
	Class 4	483	2.96	3.56			
Self-esteem	Self-esteem 2015	Class 1	100	3.32	.54	8.75***	1,2,3<4
		Class 2	214	3.38	.49		
		Class 3	285	3.42	.51		
		Class 4	515	3.53	.46		
	Self-esteem 2016	Class 1	96	3.38	.50	6.37***	1,2,3<4
		Class 2	202	3.42	.46		
		Class 3	276	3.44	.47		
		Class 4	487	3.54	.39		
	Self-esteem 2017	Class 1	88	3.43	.42	7.53***	2,3<4
		Class 2	194	3.41	.49		
		Class 3	271	3.45	.42		
		Class 4	487	3.55	.38		
Happiness	Happiness 2015	Class 1	100	3.15	.54	3.31*	1<4
		Class 2	214	3.23	.50		
		Class 3	285	3.26	.50		
		Class 4	515	3.31	.45		
	Happiness 2016	Class 1	96	3.22	.52	9.53***	1,2,3<4
		Class 2	202	3.26	.46		
		Class 3	276	3.32	.44		
		Class 4	487	3.41	.38		
	Happiness 2017	Class 1	88	3.25	.48	9.98***	1,2,3<4
		Class 2	194	3.28	.49		
		Class 3	271	3.26	.44		
		Class 4	487	3.41	.41		

※ Class 1: consistent low group, Class 2: parent perceived high group, Class 3: teacher perceived high group, Class 4: consistent high group

* $p < .05$, ** $p < .01$, *** $p < .001$

높게 지각한 집단'은 부모가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특징이 있으며, 분석 대상의 222명(19.2%)이 포함되었다. '교사가 부모보다 더 높게 지각한 집단'은 교사가 부모보다 상대적으로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특징이 있으며, 분석 대상의 296명(25.6%)이 포함되었다. '일치된 상 집단'은 부모와 교사가 모두 자녀의 학교준비도를 가장 높게 평정한 특징이 있으며, 분석 대상의 532명(46.1%)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학교준비도 잠재계층의 특징 중 하나는 부모와 교사의 평정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와 교사 간 자녀의 특성에 대한 평정 일치도가 높지는 않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일정 부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12].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행기능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중다 평정 결과에 대한 잠재프로파일분석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유사하게 부모와 교사 간 평정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7].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중다 평정 간 불일치한 잠재계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모 또는 교사의 단일 평정 정보를 활용하는 것보다 중다 평정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취학 전 유아기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중다 평정 결과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3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대체로 학교적응의 4개 하위요인인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 모두에서 '일치된 상 집단'과 '교사가 부모보다 더 높게 지각한 집단'이 '일치된 하 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는 교사의 단일 평정 자료에 기초한 학교준비도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2]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일치된 낮은 평정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중다 정보원을 활용한 점검이 필요하며, 이에 기초한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향상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취학 전 유아기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중다 평정 결과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3학년 시기의 학업수행능력, 문제행동,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일치된 상 집단'과 '교사가 부모보다 더 높게 지각한 집단'이 '일치된 하 집단'보다 대체로 학업수행능력, 자아존중감, 행복감 수준은 높았지만, 문제행동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교사 평정 자료에 기초한 연구에서 학교준비도가 학업수행능력,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18-19]. 본 연구결과는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일치된 낮은 평가가 있을 때 학교적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학업수행능력, 문제행동, 자아존중감, 행복감의 부정적인 특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의 잠재프로파일분석에서 확인된 '부모가 교사보다 더 높게 지각한 집단'과 '교사가 부모보다 더 높게 지각한 집단' 간에는 학교적응, 학업수행능력, 문제행동, 자아존중감, 행복감에 있어 명확한 차이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자녀가 학교와 가정에서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점과 부모와 교사가 자녀를 평정하는 준거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와 부모 간에 불일치한 결과가 나타난 잠재계층의 경우 부모와 교사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학교준비도에 대한 평정 차이가 나타난 이유를 밝히는 것이 자녀의 초등학교 적응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와 관련된 대다수 선행연구가 단일 평정 정보인 부모 또는 교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학교준비도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중다 평정 결과 자료에 기초하여 잠재계층을 확인했다는 학문적 의의가 있다. 특히 부모와 교사의 평정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공존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중다 평정 결과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실재적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준비도에 대한 중다 평정 자료에 기초한 잠재계층을 찾고,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학교적응 및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준비도에 대한 중다 평정 자료에 기초한 잠재계층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 수준과 초

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학교적응 및 심리적 특성 간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 수준과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학교적응 및 심리적 특성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확장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G. J. Duncan, C. J. Dowsett, A. Claessens, K. Magnuson, A. C. Huston, P. Klebanov, L. S. Pagani, L. Feinstein, M. Engel, J. Brooks-Gunn, H. Sexton, K. Duckworth, C. Japel, "School readiness and later achiev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Vol.43, No.6, pp.1428-1446, 2007.
DOI: <http://dx.doi.org/10.1037/0012-1649.43.6.1428>
- [2] S. A. Lee, S. A. Lim, "The mediated effects of school readiness and social skill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and first graders'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30, No.1, pp.221-233, 2019.
DOI: <http://dx.doi.org/10.20972/Kiee.30.1.201903.22>
- [3] T. M. Achenbach, S. H. McConaughy, C. T. Howell, "Child/adolescent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mplications of cross-informant correlations for situational specificity", *Psychological Bulletin*, Vol.101, pp.213-232, 1987.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101.2.213>
- [4] P. Ip, N. Rao, J. Bacon-Shone, S. L. Li, F. Ka-wing Ho, C. B. Chow, F. Jiang, "Socioeconomic gradients in school readiness of Chinese preschool children: The mediating role of family processes and kindergarten qualit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Vol.35, pp.111-123, 2016.
DOI: <http://dx.doi.org/10.1016/j.ecresq.2015.10.005>
- [5] E. Commodari, "Preschool teacher attachment, school readiness and risk of learning difficultie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Vol.28, No.1, pp.123-133, 2013.
DOI: <http://dx.doi.org/10.1016/j.ecresq.2012.03.004>
- [6] Y. A. Jung, S. J. Kim, "School readiness profiles on school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18, pp.875-895, 2019.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18.875>
- [7] J. Y. Lee, S. H. Lee, "Effect of individual variables, children's peer interactions, social competence,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 on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23, No.3, pp.171-199, 2019.
- [8] J. S. Won, J. S. Kim, "A meta-analysis on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3, No.9, pp.177-205, 2016.
DOI: <http://dx.doi.org/10.21509/KJYS.2016.09.23.9.177>
- [9] H. J. Suh, S. H. Rho,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esteem, subjective happiness,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10, No.4, pp.55-70, 2018.
- [10] A. De Los Reyes, A. E. Kazdin, "Informant discrepancies in the assessment of childhood psychopathology: A critical review, theoretical framework, and recommendations for further study", *Psychological Bulletin*, Vol.131, No.4, pp.483-509, 2005.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131.4.483>
- [11] B. R. Lane, J. Paynter, R. Sharman, "Parent and teacher ratings of adaptive and challenging behaviours in young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Research in Autism Spectrum Disorders*, Vol.7, pp.1196-1203, 2013.
DOI: <http://dx.doi.org/10.1016/j.rasd.2013.07.011>
- [12] A. De Los Reyes, T. M. Augenstein, M. Wang, S. A. Thomas, D. A. G. Drabick, D. E. Burgers, J. Rabinowitz, "The validity of the multi-informant approach to assessing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Vol.141, No.4, pp.858-900, 2015.
DOI: <http://dx.doi.org/10.1037/a003849>
- [13] T. M. Achenbach, "Multi-informant and multicultural advances in evidence-based assessment of students' behavioral/emotional/social difficultie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Vol.34, No.2, pp.127-140, 2018.
DOI: <https://doi.org/10.1027/1015-5759/a00044>
- [14] A. G. Hartley, A. L. Zakriski, J. C. Wright, "Probing the depths of informant discrepancies: Contextual influences on divergence and convergence",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Vol.40, No.1, pp.54-66, 2011.
<http://panel.kicce.re.kr>
- [15] S. H. Baek, H. W. Chung,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the changing community spirit as determined by means of growth mixture modeling", *Studies on Korean Youth*, Vol.28, No.1, pp.151-182, 2017.
DOI: <http://dx.doi.org/10.14816/sky.2017.28.1.151>
- [16] E. M. Yeon, H. S. Choi, "Exploring the latent classes in student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by mother and teacher: Multivariate analysis across school adap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6 pp.38-47,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6.38>
- [17] J. M. Kim, S. Y. Hong, "Examining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chool readiness, academic achievement,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25, No.3, pp.507-525, 2019.
DOI: <https://doi.org/10.24159/joec.2019.25.3.507>

- [19] Y. H. Kim, J. Y. Koo, H. K. Kim, "Longitudinal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o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school: The double mediation effects of home environment and school readines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9, No.3, pp.191-213, 2019.
DOI: <http://dx.doi.org/10.18023/kjece.2019.39.3.008>

연 은 모(Eun Mo Yeon)

[정회원]



- 2007년 5월 : 버지니아 주립대 (Univ. of Virginia) 국제관계학 학사
- 2009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방법 석사)
- 2014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진로상담, 실수기반학습, 학습동기

최 효 식(Hyo-Sik Choi)

[정회원]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심리검사, 학습전략, 부모-자녀 관계